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발 신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
담당자: 김영환 대외협력실장(010-8402-1718)

발송일자 2024년 7월 25일(목)

제 목 [보도자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에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호소문 발송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인도) 21개 위원국에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호소문 한일시민공동조사보고서 발송

-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지난 7월 21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는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일본의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에 1,500여 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 되어 강제노동을 당한 현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조선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은폐한 채 세계유산 등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2015년 메이지산업혁명유산 등재 당시부터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에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7월 25일 사도광산 등재를 결정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에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의 호소문

을 발송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호소문에서 사도광산 강제노동 피해자인 아버지의 피와 땀과 눈물을 세계유산에 기록해 줄 것을 절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세계유산위원회 21개국에 함께 발송한 한일시민공동조사보고서 『사도광산과 조선인 강제노동』는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동원이 결코 감출 수 없는 역사의 진실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 사도광산이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도록 세계유산위원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합니다.

<붙임>

1. Letter to World Heritage Committee from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2.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호소문
3. Appeal to UNESCO WHC from the Bereaved Families of Sado Mine Forced Labor Victims
4. 한일시민공동조사보고서 『사도광산과 조선인 강제노동』
5. Investigation Report-Sado Mine and the Forced Labor of Koreans-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